

본 자료는 2018년 명동예술극장에서 공연된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프로그램북 파일로,
관객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작·게시되었습니다.
프로그램북에 포함된 모든 원고와 사진에 대한 권리는
모두 국립극단에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의 복제, 재인용을 금하며
개인 SNS와 웹사이트에도 게시할 수 없습니다.



국립극단



국립극단
SINCE 1950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2018.
9.4 - 10.1



국립극단 명동



국립극단 -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원작 기군상 紀君祥
번역·드라마트루기 오수경
각색·연출 고선웅

공연연보..... 04

줄거리..... 05

각색작가·연출의 글..... 고선웅 06

각색작가·연출 인터뷰..... 김민정 08

기억만큼 아름다운 망각

출연진..... 11

작품 이해 돕기..... 오수경 22

원작극 『조씨고아』와 한국판 재창작의 쾌거

리뷰..... 저우젠썬 28

모두 인성을 논하지만 나는 도덕을 말하고 싶다

연습 스케치..... 32

임흥식 배우를 기리며..... 35

스태프..... 36

만드는 사람들..... 37



일정

2018년 9월 4일(화) ~ 10월 1일(월)

장소

명동예술극장

주최

(재)국립극단

초연

2015년 11월 4일 명동예술극장
각색·연출 고선웅





공연

명동예술극장

연보

2015년 11월 4일 ~ 11월 22일

2017년 1월 18일 ~ 2월 12일

2018년 9월 4일 ~ 10월 1일

해외

2016년 10월 29일 ~ 10월 30일

중국 북경 국가화극원 대극장

지역

2017년 2월 17일 ~ 2월 18일

천안예술의전당 대공연장

2017년 3월 24일 ~ 3월 25일

대전예술의전당 앙상블홀

2018년 10월 13일

인제하늘내린센터 대공연장

2018년 10월 19일 ~ 10월 20일

대전예술의전당 앙상블홀

2018년 10월 26일 ~ 10월 27일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장군 도안고는 권력에 눈이 멀어 조씨 집안을 멸족하는 정치적 처단을 자행하고 어린 조씨고아만이 목숨을 구한다. 시골의사 정영은 자신의 자식을 희생하면서 조씨고아를 살려야 하는 가혹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이를 알아채지 못한 도안고는 정영을 자신의 편으로 믿고 조씨고아를 양아들로 삼는다. 20년이 지나 조씨고아가 장성하자 정영은 참혹했던 지난날을 고백하며 도안고에 대한 복수를 부탁하는데 ...

Synopsis

Blinded by power, the general Tu'an Gu from Qin carries out a political purge to exterminate the Zhaos. Due to the violent

hands of fate, the family's doctor, Cheng Ying, is swept into the series of unfortunate events. He saves the Zhao orphan, grandson of Zhao Dun, and raised him as his son, Cheng Bo. Cheng Ying's wife and child, however, are sacrificed in the process. Unaware of this, the general Tu'an Gu puts his trust in Cheng Ying and eventually adopts Cheng Bo as his son. Twenty years later, when Cheng Bo becomes old enough, Cheng Ying confesses this miserable past to Cheng Bo and asks him to take revenge on Tu'an Gu...





고선웅 | 극공작소 마방진 예술감독

주요작품 연극 작·연출 <들소의 달> <강철왕> <마리화나> | 각색·연출 <라바르트랑> <탈출 날숨의 시간> <곰의 아내> <홍도> <리어외전> <푸르른 날에> <칼로막베스> | 구성·연출 <한국인의 초상> | 연출 <산허구리> <뜨거운 바다> 외 다수 **창극** 각색·연출 <흥보씨> <변강쇠 점 찍고 옹녀> **뮤지컬** 극본·가사·연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극본·연출 <아리랑> | 유색·가사 <원스> | 작 <남한산성> <광화문 연가> **오페라** 연출 <맥베드> **2018 평창패럴림픽 개·폐회식** 연출

주요수상 2017 제4회 서울연극인대상 연출상 | 2016 제36회 한국예술평론가협회의 올해의 최우수예술가상 | 2015 제52회 동아연극상 대상·연출상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제8회 대한민국연극대상 대상·연출상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제1회 한국연극연출가협회 올해의 연출가상, 제5회 아름다운예술인상 | 2014 제8회 차범석희곡상 뮤지컬 극본 부문 <변강쇠 점 찍고 옹녀> | 2014 제5회 중국 산둥국제연극제 연출상 <외톨이들> | 2013 제32회 영화연극상 | 2012 제5회 대한민국연극대상 희곡상 <늘어가는 기술> | 2011 제4회 대한민국연극대상 연출상 <푸르른 날에> | 2010 제47회 동아연극상 연출상 <칼로막베스> | 1999 한국일보 신춘문예 당선 <우울한 풍경속의 여자>

내 아이를 죽이고 남의 아이를 살린 미친 아버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인물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주변 인물들 역시 가관이지요. 핏덩이 자식을 살리자고 어머니는 머리끈으로 목을 매고 아버지는 칼로 목을 찌릅니다. 성문을 지키던 장수도 의리 때문에 창검을 들어 목을 굶고 이해관계도 없는 노옹 역시 아이의 죽음을 애도하며 돌바닥에 머리를 박아 죽습니다. 뿐일까요. 조씨고아 대신 죽은 아이의 어머니는 혹독한 상실감에 아이를 묻고 자결합니다. 끔찍하고 송고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 관점으로는 납득이 곤란합니다. 굳이 내 아이를 죽이면서까지 약속을 지키다니요. 그 시대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이 시대는 어떠한가요. 하이구야. 인명경시가 향다반사의 일상이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는데 버젓이 일어납니다. 잔소리한다고 부모를 죽입니다. 부모도 질세라 자식을 때려서 죽입니다. 게임하느라 굶겨죽이고 위층이 시끄럽다고 죽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죽입니다. 익명의 댓글들도 살벌하기 그지없습니다. 자살도 코스프레가 되는 세상이지요. 의리는 어떠한고 약속은 어떠한가요. 사람은 오간데 없고 돈이 곧 의리지요. 약속은 언제든지 깰 수 있고 별은 말은 언제든지 다시 삼킬 수 있습니다.

세상이 삭막하니 남녀사이드 이상해졌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이제 어울리기를 꺼려하고 때로는 경멸하기까지 합니다. 자고이래로 남녀가 그랬던 적은 없었던 듯한데 말입니다. 혼자서 술 마시고 밥 먹고 혼자서 마냥 편합니다. 결혼은 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한다고 해도 먹고 살기가 딱딱하니 아이는 없는 게 속 편하지요. 총성만 없지 세상은 분명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사람을 살피지 않고 스마트폰의 액정만 살핍니다.

연극은 인연이지요. 『조씨고아』를 처음 접했을 때 이런 등장인물들과 관객여러분이 인연이 된다면 꽤 반가워하시겠다 싶었습니다. 암만 봐도 제 눈에는 햄릿보다 정영이 더 매력 있습니다. 사실 연극의 등장인물들은 대체로 트라우마나 결핍, 또는 과잉의 성격적 결함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인물들에게 늘 사건사고가 있기 마련이니까요. 물론 정영이라는 인물이 병적으로 의리를 지키려는 것도 결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운상은 기원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 12세기의 당시 사람들에게 의리의 고결함을 일깨워주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런 이유로 다시 팔백년 전의 이야기를 꺼내 들게 되었지요.

복수라는 소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 받은 대로 돌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어린 마음을 가졌을까요. “너는 사과를 주지 않았다. 그래서 나도 주지 않겠다. 이것은 미움이다. 너는 사과를 주지 않았지만 나는 사과를 준다. 이것은 증오다.”, 라고 쓴 책이 기억납니다. 그야말로 멋진 증오이자 복수 아닌가요.

그저 이 세상이 조금 더 평화로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앞서 주체님께 자랑했습니다. 세 번째의 인연을 만들어주신 국립극단 이성열 예술감독님과 관계하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찾아주신 여러분. 선량한 마음으로 정성껏 만들었으니 부디 좋게 봐주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주위에 선전과 선동을 부탁드립니다. 목자의 말로 접겠습니다.

우환을 만들지도 당하지도 마시고 부디 평화롭기만을
금방이구나 인생은 부디 좋게만 사시다 가시기를

기억만큼 아름다운 망각

무엇을 기억할 것이고 무엇을 망각할 것인가

인터뷰 진행·정리_김민정 작가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이 명실공히 국립극단의 레퍼토리로 자리 잡은 것 같다. 세 번째 공연인데 다시 연습하는 기분은 어떠한가.

▶▶ 재공연이 결정되면 연출자는 기분이 붕 뜬다. 소모적이지 않은 경제활동을 한 듯한 포만감이랄까. 그래서 더 흥분된다. 그런데 세 번째

는 살짝 긴장감이 든다. 반복재생의 타당한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 때문이다. 내 말이라 속스럽지만 우리 작품이 금세 질리지는 않겠다는 확신을 얻었다. 주제도 등장인물도 참 매력 있다. 특히 그 역할을 맡은 배우들이 초연 때와는 또 다른 세월의 경륜을 뽐내낸다. 배우들이 지혜롭게 삶을 경영해왔구나! 그러면서 연기에 대한 부담도 내려놓았구나! 전보다 훨씬 편해 보인다. 그 만큼 작품의 빛깔도 더욱 선명해졌다.

배우들에게 각별한 애정이 있는 것 같다.

▶▶ 왜 아니겠나. 힘든 시절을 함께 버텼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초연 당시, 공손저구 역

을 맡았던 임홍식 선생님이 공연 중 무대 뒤에서 돌아가셨다. 온 몸의 피가 다 빠지는 충격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할 수 없었다. 그것이 선생님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다. 서로에게 기대며 마음을 추슬렀고 다시 무대로 돌아왔다. 무대에서 선생님을 애도했고, 남은 회차를 끈질기게 마무리했다. 이런 시간이 함께 했던 이들에게 깊은 연대감을 주었다. 임홍식어리회(會)도 만들었다. 그래서일까. 만나면 식구 같다.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물 흐르듯이 연습하고 집에 갔다가 다음날 다시 만난다.

원작인 기군상의 『조씨고아』와 고선웅이 각색한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은 어떤 차별점이 있는가.

▶▶ 내가 아무리 뛰고 날아 봤자다.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은 결국 기군상 작가의 손바닥 안에 있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 무대에서는 조금

더 자상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각색은 원작이 가진 본질을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다. 불량하게 원작을 바꾸어 내 것으로 만들려하면 벌 받는다. 당연히 결과도 좋지 않다.

각색 과정에서 정영의 아내라는 새 인물을 만들었다. 정영의 아내가 주는 비극성이 상당히 강한데, 극의 어떤 효과를 주기 위해서인가.

▶▶ 원작에서는 한결과 공손저구가 죽고 곧이어 정영의 아이마저 도안고에게 죽는다. 그런데 살짝 급해 보였다. 정영이 20년을 기다려 기어

이 복수를 하게 하는 결정적인 장치가 필요했다. 아내였다. 그녀의 죽음을 통해 피해갈 수 없는 복수의 계기를 만든다면 개연성이 더 있겠지 싶었다. 아내가 아이의 죽음에 상심하여 자결할 때 비로소 정영은 굳건한 복수심으로 무장한다. 올해는 이지현 배우의 내공이 더욱 깊어졌다. 뿐이라. 모든 배우의 진화를 피부로 느낀다.

이 작품의 비극성은 조씨 가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초연 때는 정영의 비극이 처연하게 보였다면, 재공연 때는 조씨고아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버린 인물들의 비극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번 공연은 또 어떠한지.

▶▶ 어느 날, 하성광이 아니라 정영이 서있구나 느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상대 배우도 그것을 느낀다며 흥분했다. 그럼 상대배우도 자기 역할에 여지없이 빨려 들기 마련이다. 그야말로

경이적인 모멘트! 이걸 연출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세월과 프러덕션의 팀웍과 배우들이 만들어내는 화학적 성취다.

결국 복수에 대한 이야기인가.

▶▶ 필요하다면 복수는 해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후련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주제다. 도

안고를 응징한 후 영공에게 정영이 묻는다. '구족을 멸하실 거냐'. 그러자 치매가 온 영공은 주저 없이 '구족을 멸하겠다' 며 정신을 차린다. 정영에게는 고작 열두 마지기의 땅을 주고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생을 위해 또 다른 살육을 명한다. 정영은 순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거다. 복수는 결국 또다시 복수의 씨앗을 뿌린다. 되풀이되어 온 역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디까지나 이런 우환을 경험하지 못한 내 생각에는, 당장 해결하기는 절대 쉽지 않다. 하지만 분노가 가라앉고 세월이 가고 이해당사자들의 시대가 끝이 나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더라도 용서해야 한다. 누군가는 복수의 순환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 어느 곳에서는 또 다시 복수의 씨앗이 발아하고 있을 것이다.

복수를 이룬 자의 마지막엔 무엇이 남을까. 이 시대에 복수는 어떤 의미일까.

▶▶ '베갯머리가 시끌시끌할 줄 알았는데, 너무 조용하더라. 그래서 더 잠이 안 왔다'며 도안

고는 자신의 불편했던 삶을 회고한다. 정영 또한 복수 후에 허탈감을 느낀다. 욕망을 쟁취하면 금세 또 다른 숙제가 생겨난다. 인생이 다 그렇지 않나. 침묵하던 목자가 꼬트머리에 한마디. '이런 우환을 만들지도 당하지도 마시고 부디 평화롭기만을. 금방이구나 인생은, 그저 좋게만 사시다 가시기를' 이 말의 의미가 심장하다. 선한 의지로 살면, 그만큼 좋게 살 확률도 높아지지 않을까.

다시 연습하며, 가장 염두에 두는 것, 경계하는 것은 무엇인가.

▶▶ 그때라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나이

를 한 살 두 살 보태면서 한 작품을 계속할 수 있는 나는 참 행운아다. 사람들은 이번이 지난번과 무엇이 다른지 알고 싶어 한다. 하지만 공연은 언제나 다르다. 동선이 같아도 어제의 것을 답습하지는 않는다. 배우들은 초연 때보다 인생을 몇 년 더 살았다. 더 릴렉스 되었지만 집중력은 되려 높아졌다. 자기 안에 인물을 육화시켜 토해내는 그들의 연기가 실로 놀랍다. 연극은 세월을 등에 업으면서 비로소 본질에 가까워지는 거 같다. 보여줄 수 있는 것을 기왕에 다 찾은 줄 알았었다. 아니었다. 하면 할수록 새로 보이는 것들이 있다. 그것도 아주 많다.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이 고선웅 연출에게는 어떤 변화와 영향을 주었나.

▶▶ 공손저구가 그런다. '이 세상은 꼭두각시의

무대, 북소리 피리소리에 맞추어 놀다 보면 어느 새 한바탕의 짧은 꿈'. 그 문장이 나를 지탱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지난 3년간 동계패럴림픽 개·폐회식을 준비하면서 지치고 힘들 때가 많았다. 도망치고 싶을 정도였다. 그런데 막상 끝나고 나니, 3년 공부였다. 나 자신이 전보다 더 단단해졌음을 느꼈다. 애쓰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요령을 피우거나 잔꾀를 부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한바탕 꿈처럼 지나간다.

이 시대에 연극은 무엇일까. 우리는 연극을 어떻게 해야하며, 사람들은 왜 연극을 봐야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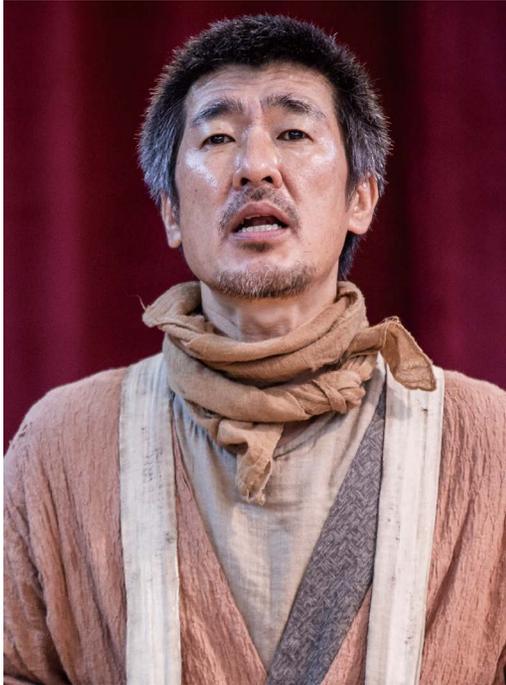
▶▶ 남들은 4차 혁명이다 뭐다 하며 부산을 떠

는데 연극은 참 그대로다. 또 여전히 번거롭다. 긴 연습을 하고, 세트를 세우고, 어두운 곳에 관객을 가두고 굳이 조명을 켜다. 매일 같은 이야기의 반복. 그러나 거기에 엄연히 인간이 있다. 인생의 지혜와 어리석음이 있다. 분수처럼 흘러지는 땀과 가쁜 숨소리가 있다. 이것이 연극이 존재하는, 사람이 연극을 그리워하는 이유다. 그래서 연극은 내게 질리지 않는 보석과도 같다. 물질문명은 연극을 뒤로 제쳐두고 멀찍이 앞서갈 것이 자명하다. 하지만 인간은 결국 북소리 피리소리에 맞추어 무대로 돌아온다. 날고 뛰어봤자 무대 안이다.

마지막으로 관객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

나도 어느 새 중간이다. 연극하는 한 사람으로

연극의 가치를 잘 지켜내고 잘 넘겨도 주고 싶다. 우리 연극을 더 응원하고 사랑해주시면 좋겠다.



하성광 Ha Sung-kw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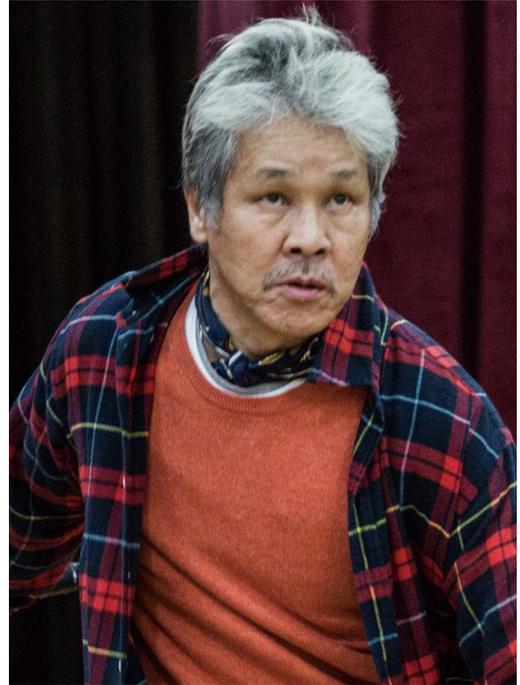
정영 Cheng Ying

연극

- 〈3월의 눈〉 18 | 용철 | 명동예술극장
- 〈고모를 찾습니다〉 16 | 켈프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 〈야끼니꾸 드래곤〉 16 | 용길 | 일본 도쿄 신국립극장 외
- 〈The Power〉 15 | 초록장군 외 | 명동예술극장
- 〈남산에서 길을 잃다〉 14 | 김승렬 | 국립극단 소극장 판
- 〈배수의 고도〉 14 | 노자키 사이조 | 두산아트센터 space111
- 〈농담〉 13 | 오창강 | 남산예술센터
- 〈풍찬노숙〉 12 | 처장국 | 남산예술센터
- 〈인어도시〉 10 | 이씨 | 두산아트센터 space111
- 〈웅산, 의자들〉 09 | 남자 | 브로드웨이 아트홀 외 다수

수상

- 2015 제52회 동아연극상 연기상
- 2015 제8회 대한민국연극대상 연기상
- 2006 제27회 서울연극제 신인연기상



장두이 Chang Due-ye

도안고 General Tu'an Gu

연극

- 〈에쿠우스〉 18 | 마틴 다이사트 | 대학로 TOM 외
- 〈혈맥〉 16 | 강통영감 | 명동예술극장
- 〈벚꽃동산〉 15 | 가예프 |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 〈리어왕〉 15 | 리어 | 명동예술극장
- 〈오늘 또 오늘〉 15 | 성민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 〈Oh! Jerusalem〉 88 | A Tourist | 이스라엘 Israel Theater
- 〈Agamemnon〉 87 | Agamemnon | 이탈리아 로마 Spoleto Teatro
- 〈DiDiMus〉 86 | DiDi | 미국 LA Grotowski Theater
- 〈Tibetan Book of the Dead〉 83 | A Dead Person | 미국 뉴욕 La Mama Annex Theater 외 다수

수상

- 2015 한국재능기부협회 한국재능나눔대상
- 2006 제24회 대한민국희곡문학상 대상
- 2003 뉴욕 드라마 클럽 특별상
- 1995 제31회 백상예술대상 연극부문 남자연기상
- 1989 아시아 소수민족 예술가상(뉴욕)
- 1983 미국 OBIE 연극상



정진각 Chung Jin Gak

공손저구 Gongsun Chuju

연극

- 〈도토리〉 16 | 판사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 〈춘풍의 처〉 16 | 부 | 남산극약당
- 〈로미오와 줄리엣〉 16 | 신부 |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 〈태〉 16 | 신숙주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 14 | 이중생 |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 〈백마강 달밤에〉 14 | 저승사자 | 남산예술센터
- 〈3월의 눈〉 12-13 | 상구 | 백성희장민호극장
- 〈템페스트〉 11 | 자비왕 |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 〈용호상박〉 09 | 하룡 | 국립극장 KB하늘극장
- 〈남자충동〉 04 | 이씨 | 동숭아트센터 동숭홀 외 다수

수상

- 2016 제6회 아름다운 예술인상 연극예술인상
- 2015 제20회 히서연극상 올해의 연극인
- 2014 제3회 대한민국 셰익스피어어워즈 연기상
- 2011 제4회 대한민국연극대상 남자연기상
- 1997 제21회 서울연극제 연기상
- 1993 제30회 동아연극상 연기상



이영석 Lee Young-seok

영공 Duke Ling

연극

- 〈괘적〉 16 | 리어커할배 | 상명씨어터
- 〈조치원 해문이〉 15 | 이성국 | 백성희장민호극장
- 〈푸르른 날에〉 15/11 | 일정 | 남산예술센터
- 〈고도를 기다리며〉 15/07 | 포조 | 산울림소극장
- 〈연기가 눈에 들어갈 때〉 12 | 김진우 | 그라운드씬
- 〈고곤의 선물〉 12/09 | 담신스키 | 명동예술극장
- 〈백년, 바람의 동료들〉 11 | 아제 | 두산아트센터 space111
- 〈더블린 캐롤〉 07 | 존 | 산울림소극장 외 다수

수상

- 2017 한국연극배우협회 올해의 배우상
- 2017 제4회 서울연극인대상 연기상
- 2016 제15회 미장센단편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연기부문)
- 2014 제1회 서울연극인대상 남자연기상
- 2000 한국연극협회 특별상
- 1999 한국연극협회 연극인상
- 1994 한국연극배우협회 올해의 우정상



유순웅 Yu Soon-uoong

조순 Zhao Dun

연극

〈엄정미 유씨〉 18-04 | 유씨 | 자계예술촌 외
 〈국물있사옵니다〉 16 | 관리인 | 백성희장민호극장
 〈만두와 깔창〉 13 | 유깔창 | 대학로예술극장 혜화 외
 드라마

〈송곳〉 〈크로스〉

영화

〈남한산성〉 〈챔피언〉 〈명량〉 〈광해 왕이 된 남자〉 〈의뢰인〉
 외 다수

수상

2012 제12회 2인극페스티벌 인기상
 2008 현대HCN방송 현대충북예술상
 2006 제27회 서울연극제 인기상
 2005 전통연희본 공모 최우수상



조연호 Cho Youn-ho

제미명 외 Di Miming, etc.

연극

〈황색여관〉 16 | 은퇴자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가을 반딧불이〉 15/13 | 슈헤이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외
 〈타클라마칸〉 14 | 사내 | 연주소극장
 〈상록수〉 14 | 강기천 | 당진문예의전당 소공연장
 〈여름과 연기〉 07 | 도어머스 |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아일랜드행 소포〉 06 | 형 | 대학로 마당세실극장
 〈박무근 일가〉 03 | 박무근 | 동덕공연예술센터 대극장
 〈사천의 착한 사람〉 98 | 망령난 할배 | 학전소극장
 외 다수

수상

2014 제14회 2인극 페스티벌 연기상
 2006 제18회 거창국제연극제 연기상



이지현 Lee Jihyun

정영의 아내 Cheng Ying's wife

연극

〈로퐁찬 유랑극장〉 18/14 | 노부인 | CLK스튜디오 외
 〈과학하는 마음-숲의 심연〉 16 | 조기쁨 | 서강대학교 메리홀 소극장
 〈킬 미 나우〉 16 | 로빈 | 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
 〈민들레 바람되어〉 16/14 | 노부인 | 수현재씨어터
 〈뽕뽕뽕〉 14 | 다역 | 선돌극장
 〈달나라 연속극〉 14 | 여만자 | 연우소극장
 〈그리고 또 하루〉 13 | 여자 | 아르크소극장
 〈뽕〉 12 | 나조금 | 두산아트센터 Space111
 〈1동 28번지, 차숙이네〉 11 | 차숙 | 남산예술센터
 〈시동라사〉 09 | 강정옥 | 나운씨어터

외 다수

드라마

〈더 패키지〉 〈식사를 합시다〉

수상

2017 제13회 하얀수건상
 2012 제33회 서울연극제 여자연기상
 2009 제46회 동아연극상 유인촌신인연기상



성노진 Sung No-jin

도안고의 부사 외 Tu'an Gu's servant, etc.

연극

〈괴벨스 극장〉 18-16 | 선생님 외 | 연우소극장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 16 | 핫산 외 | 남산예술센터
 〈만리향〉 16-14 | 첫째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외
 〈차이메리카〉 15 | 데이빗 바커 외 | 두산아트센터 space111
 〈목란언니〉 13 | 오영환 외 | 두산아트센터 space111
 〈콜라소녀〉 13-12 | 막내아들 | 학전블루소극장
 〈동 주앙〉 11 | 동 카를로스 | 명동예술극장
 〈다락방〉 09 | 아르크예술극장 소극장
 〈다리퐁 모단걸〉 07 | 기범 | 동송아트센터 소극장
 〈자객열전〉 06 | 이봉창 | 대학로 우리극장
 〈웃어라 무덤아〉 04 | 소년 | 아르크예술극장 소극장
 〈인류 최초의 키스〉 03-02 | 고성만 | 바탕골 소극장
 외 다수



장재호 Jang Jae-ho

서예 외 Chu Ni, etc.

연극

〈길 떠나는 가족〉 14 | 중석/포대령 외 | 명동예술극장
 〈아리랑 랩소디〉 13 | 박살제 | 동송아트센터 동송홀
 〈꿈〉 12 | 조신 | 백성희장민호극장
 〈궁리〉 12 | 당직사령 | 백성희장민호극장
 〈크로이체르 소나타〉 10 | 포즈드니슈네프 | 아르코예술극장대극장 외
 〈벚꽃동산〉 10 | 로바힌 |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엘렉트라〉 08 | 오레스테스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아름다운 남자〉 05 | 통수기 | 게릴라극장
 〈억척어멈과 그의 자식들〉 07 | 상사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무용

〈파노라마〉 14 | 해설자 | LG아트센터

뮤지컬

〈메리골드〉 18 | 동준 | 열린극장

외 다수



호산 Ho San

한결 General Han Jue

연극

〈푸르른 날에〉 15-12 | 이상우 | 남산예술센터
 〈리어외전〉 12 | 에드먼드 | LG아트센터
 〈헤다 가블러〉 12 | 엘레르트 뢰브보르그 | 명동예술극장
 〈철로〉 12 | 존 프레스콧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칼로 막베스〉 11 | 막베스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외
 〈들소의 달〉 10-09 | 워리 외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락히맨쇼〉 11 | 나다 | 신촌 더스튜디오
 〈살〉 11 | 프로메테우스 | 남산예술센터
 〈오장군의 발톱〉 10 | 영현 하사관 외 | 명동예술극장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17 | 팻 대닝 | 디큐브아트센터

〈맘마미아〉 16 | 빌 | 사롯데씨어터

외 다수



강득중 Kang Deuk-jong

영첩 Ling Zhe

연극

〈탈출 날숨의 시간〉 16 | 남덕 | 국립극장 KB하늘극장
 〈곰의 아내〉 16 | 사냥꾼 |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외
 〈강철왕〉 15 | 식이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외
 〈칼로 막베스〉 15-11 | 맨티스 외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외
 〈리어외전〉 12 | 잭 | LG아트센터
 〈리시스트라타〉 12 | 남자 코러스장 | 동숭무대 소극장
 〈오렌리의 사랑이야기〉 05 | 신사 | 고양어울림누리
 〈아름다운 사인〉 04 | 남자 | 아리랑 소극장
 〈피카소, 돈년, 두보〉 03 |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작은할머니〉 03-02 | 조춘아버지 |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외
 영화
 〈공작〉 〈꾼〉 〈해빙〉 〈더킹〉 〈인간중독〉 〈평양성〉 외 다수
 드라마
 〈미스티〉 〈조작〉 〈징비록〉 〈아이리스〉 외 다수



김명기 Kim Myung-ki

신오 외 Demon Mastiff, etc.

연극

〈모던타임즈〉 18 | 사장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시대는 서커스의 꼬끼리를 타고〉 17 | 우디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리처드3세〉 17 | 조지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탈출 날숨의 시간〉 16 | 석철 | 국립극장 KB하늘극장
 〈곰의 아내〉 16 | 역장 |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외
 〈강철왕〉 15 | 근이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외
 〈푸르른 날에〉 15/11 | 최중사 |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칼로 막베스〉 14/10 | 스윙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외
 〈목란언니〉 13-12 | 리명철 | 두산아트센터 Space111
 〈영호와 리처드〉 13 | 영호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외
 〈리어외전〉 12 | 켄트 | LG아트센터
 〈로풍찬 유랑극장〉 12 | 로풍찬 | 연우소극장
 외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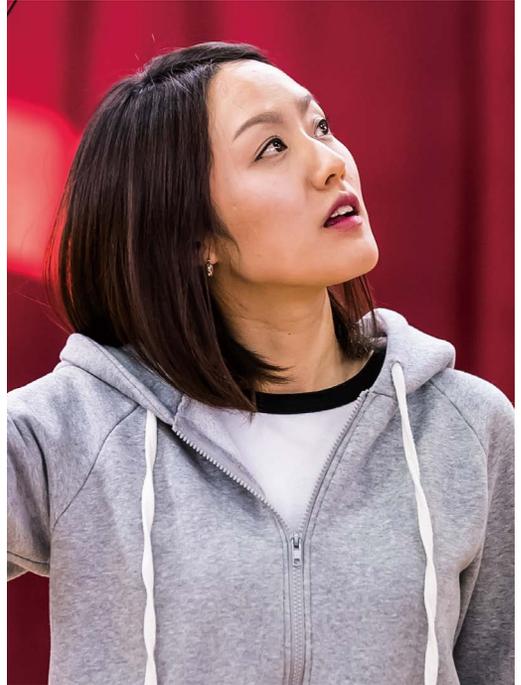


김도완 Kim Do-wan

조작 Zhao Shuo

연극

- 〈무순 6년〉 18 | 마키 역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 〈Beauty end the Beast〉 17 | 이수, 왕자 | 강동아트센터
- 〈페리클레스〉 16 | 페리클레스 외 |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 〈보물섬〉 16 | 존 실버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 〈백중사 이야기〉 16 | 백중사 외 | 대학로 선돌극장
- 〈겨울이야기〉 16 | 안티고누스 |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 〈정글북〉 15 | 산울림소극장 외
- 〈너는 똥을 누고 나는 물고기를 누었다〉 14 | 해공 | 국립극단 소극장 판무용
- 〈Glory〉 17-16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외
- 〈Light〉 17 | 대학로 C이아트
- 〈Burn, 타오르는〉 16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 〈Session〉 16 | 일본 도쿄 신국립극장 외 다수



전유경 Chun Yoo-kyung

목자 Blind Woman

연극

- 〈아이스계끼〉 17 | 젊은 정숙 | 알과핵 소극장
- 〈아워 시티 - 우리 도시〉 17 | 유경 | 아름다운 극장
- 〈마리아와 함께 아아아아아〉 14 | 마리아 | 혜화동1번지
- 〈아버지의 집〉 13 | 선생 | 남산예술센터
- 〈해변의 카프카〉 13 | 소가/BBC앵커 | 동숭아트센터 동숭홀
- 〈만선〉 12-11 | PD |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 〈황구도〉 11 | 캐시 | 대학로 TOM
- 〈따나따나〉 10 | 따나 | 거창국제연극제
- 〈변신〉 10 | 젊은 여인 |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 〈오늘, 손님오신다〉 09 | 얼굴4-엄마 | 남산예술센터
- 〈동강리 미스터리〉 09-08 | 레지 | 정보소극장
- 〈로베르트쥬코〉 08 | 우아한 부인 | 우석레퍼토리씨어터 외 다수



우정원 Woo Jeong-won

공주(더블캐스트) Princess(Double Cast)

연극

- 〈가지〉 18-17 | 코넬리아 | 백성희장민호극장
- 〈얼굴도둑〉 18 | 직장동료 | 백성희장민호극장
- 〈당신이 알지 못 하나이다〉 17 | 태림 | 남산예술센터
- 〈뜨거운 양철지붕 위의 고양이〉 17 | 마가렛 |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 〈리처드3세〉 17 | 요코공작부인 외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 〈실수연발〉 16 | 창녀 외 | 명동예술극장
- 〈로베르토 주코〉 16 | 여자아이의 언니 외 | 명동예술극장
- 〈아버지〉 16 | 그 여자 | 명동예술극장
- 〈국물있습니다〉 16 | 성아미 | 백성희장민호극장
- 〈택배왔어요〉 16 | 송미란 | 노을소극장
- 〈겨울이야기〉 16 | 헤르미오네 |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 〈이영녀〉 16-15 | 인범이네 | 백성희장민호극장
- 외 다수



정새별 Jung Sae-Byul

공주(더블캐스트) Princess (Double Cast)

연극

- 〈성〉 18 | 프리다 | 명동예술극장
- 〈선을 넘는 자들〉 18 | 윤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 〈1984〉 17 | 줄리아 외 | 명동예술극장
- 〈이건 로맨스가 아니야〉 17 | 미소 | 국립극단 소극장 판
- 〈가족〉 17 | 박애리 | 명동예술극장
- 〈심청〉 17-16 | 간난 | 두산아트센터 space111 외
- 〈북새통의 겨울이야기〉 16 | 페르디타 외 | 미마지아트센터 눈빛극장
- 〈쓴사인의 전사들〉 16 | 송시자 외 | 두산아트센터 space111
- 〈왕과 나〉 16 | 장옥정 외 | 미마지아트센터 눈빛극장
- 〈고등어〉 16 | 강경주 | 국립극단 소극장 판
- 〈외계인들〉 15 | 에반 | 게릴라극장 외
- 외 다수



이형훈 Lee Hyoung-hun

조씨고아 외 The Orphan of Zhao, etc.

연극

- 〈창문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18 | 알란3 | 대학로 자유극장
- 〈네버 더 시너〉 18 | 레오폴드 | DCF대명문화공장 라이프웨이홀
- 〈밀레니엄 소년단〉 17 | 지훈 | 동숭아트센터 소극장
- 〈글로리아〉 17 | 딘 데빈 | 아트원씨어터
- 〈도둑맞은 책〉 17 | 조영락 | 총무아트센터 소극장 블루
- 〈보도지침〉 17 | 김주혁 | 대학로 TOM 연습실
- 〈사이레니아〉 16 | 아이작 다이어 | 대학로 연습실 TOM
- 〈세일즈맨의 죽음〉 16 | 버나드 |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 〈필로우맨〉 15 | 마이클 | 두산아트센터 space111
- 〈변신이야기〉 15 | 베르투스 외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외
- 〈해맞이〉 14 | 코르티카 | 대학로 선돌극장

창극

- 〈레이디 맥베스〉 16 | 시종2 | 국립국악당 우면당
- 외 다수







원잡극 『조씨고아』와 한국판 재창작의 쾌거

오수경 한양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번역·드라마트루기

중국에서는 약 천 년 전 송나라 때부터 이미 장편 희곡이 나와 도시 극장과 시골 무대에서 공연되었다. 도시와 시골을 가리지 않고 가는 곳마다 전통 무대가 서 있었고, 그나마 없으면 임시로 무대를 가설해서라도 명절과 경조사에 어김없이 연극을 공연했다. 지금도 지역마다 자기들의 사투리와 가락으로 노래하는 전통극이 있어서 그 종류가 거의 삼백 종을 헤아린다. 중국에서 전통 연극이 얼마나 유행했는지 짐작할 만하다.

그 수많은 작품 가운데서 특별히 관한경(關漢卿(1219-1301)의 『두아원(竇娥冤)』과 기군상(紀君祥(13세기 중후반 생몰 추정)의 『조씨고아(趙氏孤兒)』 두 작품은 20세기 초 중국 최고의 학자인 왕국유(王國維) 선생에 의해 세계적인 비극들 가운데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비극이라고 손꼽히며 더 유명해졌다. 대부분의 중국 희곡이 해피엔딩의 사랑 이야기였기 때문에, 서구 연극 개념을 접하면서 중국에도 엄숙한 비극이 있음을 강조하려는 것이었다. 특히 『조씨고아』는 명나라와 청나라 대를 거치며 끊임 없이 공연되어 왔을 뿐 아니라, 가장 먼저 해외에 소개되어 18세기 유럽에서도 선풍적 인기를 얻었던 작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립극단 제작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이 2015년 11월 4일 명동예술극장에서 초연되어, 그 해 최고의 연극으로 꼽히며 동아연극상 대상, 연출상, 연기상 등 많은 상을 받기도 했다. 또, 2016년 10월 28-29일 중국의 수도 북경 국가극원 대극장에서 공연하여 북경의 관중을 매료시켰다. 고막이 터질 듯 한 수차례의 기립 박수는 물론, 공연 후 며칠간 북경의 인터넷과 신문에서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에 대한 찬사가 끊이지 않았다. 본토에서 확실하게 그 작품성을 인정 받은 셈이다.

이 공연은 중국 고전 희곡을 우리 손으로 동시대 무대로 만든 것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중국의 현대극 수용 역사는 우리와 비슷하여 그리 길지 않지만, 중국의 고전 희곡은 수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천 년에 걸쳐 쌓인 극작법의 노하우도 엄청나고 정서적으로도 우리와 상통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그런데, 그리스 비극, 셰익스피어 등 서양의 고전들이 끊임없이 우리 현대극 무대에서 공연되는 것에 비하면 동양의 고전은 한 손으로 꼽기도 부족하다. 같은 복수를 다룬 비극이라 해도 가까운 나라의 『조씨고아』가 먼 나라의 『햄릿』보다 훨씬 낫선 것이 사실이다. 이 공연을 통해 중국 고전 희곡이 지닌 서사의 힘과 우리 예술인들이 동시대적 감성으로 완벽하게 재창작해낸 한국

판 『조씨고아』를 만나기 바란다.

원 잡극 『조씨고아』

『조씨고아』는 기군상의 원 잡극본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조씨고아의 이야기가 원 잡극으로만 전하는 것은 아니다. 민간의 이야기 전승은 주로 구두로 이루어지므로 텍스트가 전하지 않아 지금 그 자세한 양상을 알 수 없으나, 많은 이야기본과 연극본이 있었을 것이다. 원 잡극이 유행할 당시 남방에는 남희라고 하는 장편희곡이 유행하여 『조씨고아보원기(趙氏孤兒報冤記)』라는 제목이 전한다. 이 남희본과 잡극본을 함께 수렴한 것으로 원대의 남희 『조씨고아기』가 전한다. 그 후에도 『조씨고아』는 경극, 천극, 진강, 상극, 한극, 월극, 예극, 고강 등 여러 지방회에서 중요한 레퍼토리로 공연되고 왔고, 그 핵심부분인 『고아 수색과 구출(搜孤救孤)』 대목은 20세기 초 경극 명배우들도 다투어 녹음을 남긴 인기 레퍼토리였다. 최근에도 연극과 영화, TV드라마로 계속 리메이크되고 있다.

『조씨고아』의 작가 기군상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다. 원 초기 작가로 대도(지금의 북경) 사람이며, 잡극을 6종 남겼다고 하나 『조씨고아』 외에는 온전히 전해진 것이 없다. 이처럼 원대의 작가들은 대부분이 무명작가들이고 혹 이름을 알 수 있다 해도 사회적 지위가 높은 문인은 별로 없다. 몽고족이 중국을 정복하고 다스렸던 원대라는 특수한 사회적 상황에 기인한다. 이미 송대부터 중국에는 연극 장르가 크게 발달하여 도성에는 롯데월드 같은 종합오락 시설이 여러 곳 있었고, 그 규모도 컸다. 그 안에서는 각종 연회가 공연되었고 사람들은 돈을 내고 구경하였다. 원 제국은 농경 중심의 중국에 유목적 사회 시스템을 접목시켜 상업이 더욱 발달했고 사회의 유동성이 커져, 대도시나 무역항 등을 중심으로 연예가 크게 발달하였다. 중원까지 통치 범위를 확대시킨 원나라의 몽고인, 색목인 상인과 관리들에게 다른 중국 문학보다는 듣고 보고 즐길 수 있는 연극 장르가 더 선호되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한편으로 원대에는 약 80년간 과거제도가 폐지되어, 송대까지 크게 확대되어 온 과거시험을 통한 입신양명의 길이 닫혀 버렸다. 과거 시험을 준비하다가 일시에 출로가 막혀 버린 많은 선비들이 생계를 위해 글방 선생이 되거나 관가의 아전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시중 연예물의 작가로 나섰다. 이들 문학적 소양이 뛰어난 작가들이 민간 연예 창작에 참여하면서 문학성이 뛰어난 희곡이 나오게 되었고, 원 잡극이 동시대 남방의 희문보다 더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이 많은 이유로 여겨진다. 이들 원대 작가들 가운데는 단순한 오락용 연예로의 희곡 창작에 그치지 않고 민족 정체성에 대한 자각을 갖고 창작에 임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 당시 사회 문제를 제재로 삼아 시사 이슈에 대한 비판을 담은 작품이나 과거 문인들의 이야기를 빌어 당시 지식인들의 처지를 한탄하고 문학 속에서 보상을 구하는 작품도 나왔고, 옛 역사 소재를 취하여 은유적으로 현실을 다룬 작품도 나왔다. 『조씨고아』는 바로 이러한 작품 중의 하나였다.

이번 공연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은 2막 6장으로, 이러한 주연 중심 음악극 양상을 떠나 모든 인물이 역할을 부여 받는 현대극으로 각색되었다. 오히려 모든 조연이 다 개성적인 인물로 뚜렷한 인상을 남겼고, 필요에 따라 민요풍의 노래를 삽입하여 극적 효과를 높였다.

역사극 『조씨고아기』: 복수를 다룬 비극

『조씨고아』는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한 연극이다. 선진 시대 『춘추』 『좌전』 『국어』 『공양전』 등에 보이는 단편적인 역사 기록에서 출발하여, 사마천의 『사기』에 이르러 충신과 간신의 정치적 갈등 구조로 이야기 맥락이 형성되었다. 『춘추』에는 그저 “대부 조동(趙同), 조괄(趙括)을 죽였다”는 모반 사건으로만 압축되어 기록되어 있다. 『좌전』에서는 장희 공주가 시숙부 조영(趙嬰)과의 사통으로 부마 조삭(趙朔)과 갈등을 일으키며 조씨 집안을 반역 모의로 고발하여 풍파가 일고, 도안고가 그 기회를 타 권력을 장악하나, 이후 한결(韓厥)의 상주로 조씨고아 조무(趙武)의 복권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미 조순(趙盾)을 돕는 서예(組麀), 제이명(提爾明), 영첩(靈輶) 등의 인물이 등장한다. 사마천의 『사기』 『조세가』에 이르면, 『좌전』에 진(晉)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던 부분을 조씨(趙氏) 집안에 초점을 맞추어 조순과 도안고(屠岸賈)의 충신과 간신의 갈등으로 재구성 하면서, 여러 총직한 이들의 희생으로 조씨 집안의 맥을 잇게 되는 역사 서사물의 틀이 확립되었다. 이후 이 역사적 사건은 조씨고아를 둘러싼 극적인 이야기로 전승되면서, 다양한 작품으로 창작되었다.

원 잡극에서는 복수를 완수하여 도안고의 일족 삼백명을 참하는 대단원으로 막을 내린다. 고선웅 연출가는 여기에 더욱 강력한 풍자로 절대권력을 개입시켰다. 사건의 발단 부분에서 도안고의 권력에 대한 욕망을 깔고 앉았던 영공이 극의 파국에서는 역시 권력의 안목에서 도안고 일족을 제거하는 것으로, 그 절대 권력의 폭력성을 풍자하였다. 어쨌거나 현대인들에게 이러한 피비린내 나는 보복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말이다. 고선웅 연출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정영에게 다가온 복수 후의 허탈감을 통해 과연 이러한 복수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를 되묻는다. 먼저 간 영훈들, 심지어 아내까지도 복수의 일념으로 몸과 마음 모두가 망가져버린 그의 인생에 대해 보상하거나 위로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고선웅의 각색은 기군상의 『조씨고아』를 매우 현대적인 해석으로, 그러나 지극히 보편적인 인성의 문제로 환원시키며 우리를 전율하게 만든다. 거기에 작가 고선웅의 각색으로 더해진 정영부부의 아기 희생 장면은 거대 서사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로 느끼게 한 인성의 드라마로, 서울과 북경을 막론하고 많은 관객들을 감동시켰다.

『조씨고아』의 해외전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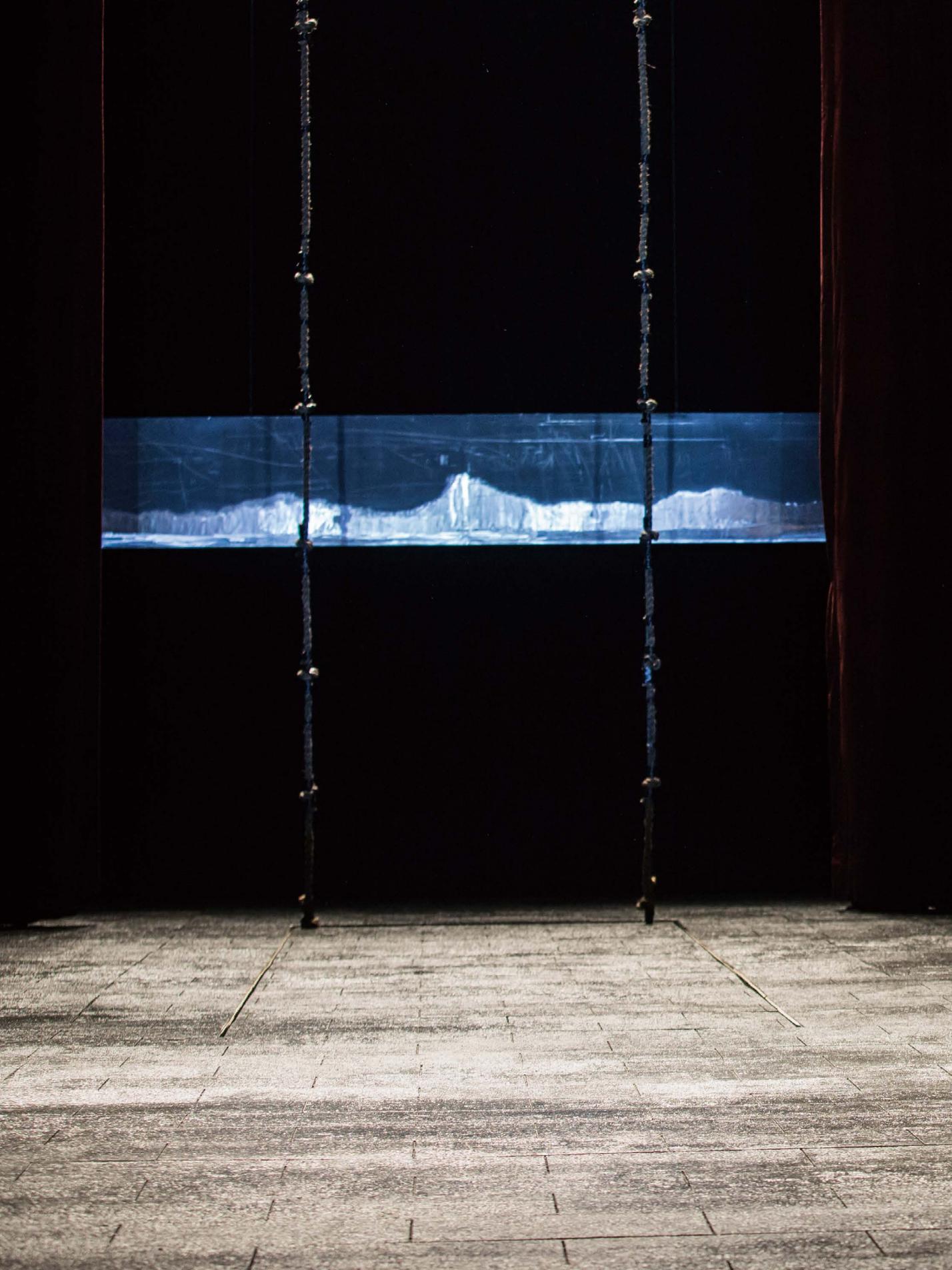
『조씨고아』는 유럽에 소개된 최초의 중국 희곡으로, 18세기 초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번역된 이후 그 작품성을 인정받아 여러 국가에서 번안 및 각색되어 무대에 올려졌다.

우리나라에는 조선 시대 말에 희곡이 아닌 소설로 조씨고아 이야기가 수용되었는데, 한문 소설 『조무전(趙武傳)』과 한글 소설 『보심록(報心錄)』, 『명사십리(明沙十里)』 등이 보고되어 있다. 『조무전』은 명대 소설인 『동주열국지』 57회, 59회에 부분적으로 나오는 조씨 세가의 이야기를 기초로 한 한문 소설이다. 조삭을 주인공으로 삼아 조순이 아닌 조삭과 도안고의 대립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본래 이야기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조삭의 충심과 장희 공주의 현덕을 찬양하고, 마지막에 조무가 부모를 추모하며 삼년상을 받드는 것이 강조되어 있어, 성리학 사회였던 조선에서는 도덕과 예법이 더욱 강조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한글 소설인 『보심록』에서는 조씨고아 이야기의 기본 틀을 채용하되 등장인물을 양세충, 증문효, 화익삼 등으로 바꾸었다. 중국희곡을 수용할 때 공연용 희곡 문학



이 없던 조선에서는 대개 소설로 수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중국 희곡 가운데 이렇게 장구한 시간 전세계적으로 전파되고 수용된 것은 『조씨고아』가 유일할 것이다. 『서상기』와 『모란정』과 같은 사랑 이야기도 널리 전파되었지만, 처연한 복수의 모티브를 다룬 역사극 『조씨고아』는 충간과 선악의 투쟁에서 인간 고유의 덕인 신의를 지키기 위한 자기희생에 이르기까지 더욱 보편적 정서로 접할 수 있는 레퍼토리로서, 다양한 변주가 가능했기 때문일 것이다. 국립극단의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은 비교적 원 잡극에 충실한 각색으로, 원작의 작품성을 살리는 동시에 현대적이고 한국적인 감수성으로 자연스럽게 원작이 지닌 비극적 에너지를 풀어냈다고 평가 받았다. 그간 우리 무대가 중국 연극과의 의미 있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늘 아쉬운 점이었는데, 고선웅 연출가는 13세기 중국 작가의 작품을 21세기 한국 무대에 완전히 우리 것으로 재창작해냄으로써, 중국 고전 희곡의 방대한 세계를 우리 무대로 불러내는데 성공했다. 특히 원 잡극 『조씨고아』에 놀이로의 연극이 지니는 에너지를 극대화한 연출로, 오히려 비극 속에서 경쾌함과 리듬감이 살아있는 독특한 한국적 미감을 만들어 냈다. 여기에 빈 무대와 상징적인 소도구, 진정성과 놀이를 오가는 빼어난 연기 앙상블, 그리고 극적 감성을 받쳐주는 음악의 깊은 울림까지 완벽한 앙상블을 이루었다. 본토 북경 무대에서 울려 퍼진 박수 소리는 근래 우리 연극에 바쳐진 최대의 헌사였다. 예술은 정치 경계를 넘어 인간 내면에서 보편성으로 만나는 것임을 확인시켜주었다. 2015년 초연 도중 유명을 달리하신 공손저구 역 임홍식 배우님의 열정을 기억하며,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공연팀의 열정이 다시 한 번 명동예술극장 무대를 달굴 것을 기대한다.





모두 인성을 논하지만 나는 도덕을 말하고 싶다

저우젠썬 周健森 공연평론가. 2016. 11. 5 베이징청년예술평론·번역 장희재



©중국국가화극원

보편적으로 『조씨고아』는 도덕적 문제를 다룬 작품으로 수용된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다시 만들고 자 하는 동시대 창작자들은 모두 아주 위험한 문제 하나에 직면하게 된다. 그것은 기군상이 팔백 년 전에 쓴 이 원 작극에 담겨있는, 이천 년 동안 계승되어온 도덕관이 현재 사회에도 성립되는가의 문제이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 국립극단이 공연한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을 마주하며 자연스럽게 한 가지 물음이 더 생겼다. 그것은 바로 이 오래된 도덕관이 문화를 넘어 해석되면서 오독되지는 않을 까이다.

이 질문은 결코 일부러 자극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고대 동양의 복수 이야기를 현대에 다시 꺼 내들 때 어쩔 수 없이 마주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인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고아를 구하는 데 참여 했던 의인들이 각기 다른 삶의 선택을 했다면 이 이야기는 언제든지 중단될 것이다. 또 만약 극중인

물이 이 긴 복수의 계획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면 역시나 이 이야기는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다. 또 관객들이 살신성인의 도덕관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면, 이 비극은 바로 황당한 코미디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근 몇 년간 『조씨고아』의 현대적 각색본을 많이 보았는데, 대부분 이러한 도덕적 문제에 빠져 길을 잃었다. 린자오화(林兆華) 버전의 〈조씨고아〉(진하이슈(金海曙) 각색)에서는 성년이 된 조씨고아가 복수하기를 거부하였다. 그래서 극 전체가 무의미해졌고, 의미 없이 부서져 버렸다. 천카이거(陈凯歌)의 영화 〈조씨고아〉는 일부러 조순(卍해자)과 도안고(가해자) 간의 선악의 경계를 모호하게 처리하였다. 결과적으로 대의로 고아를 구한 정영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당혹감에 빠졌다.

현대적 각색본들이 『조씨고아』를 마주하며 드러낸 망설임과 막막함은 사실 두 가지 내면 가치의 충돌을 보여준다. 하나는 이 고전 서사의 충실하고 짙은 구조에 사로잡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대적 의미의 인성에 위배되는 작품을 만들 것 같은 두려움이다. 이런 인성은 먼저 자신 개인의 생명이 최상의 가치라는 인식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 다음에 이기주의적 자기 변명의 서브텍스트가 숨겨져 있어야 한다. 이런 인성론 앞에서 『조씨고아』의 대가를 따지지 않는 희생적 행위는 당연 통하지 않는다.

연극 창작의 컨텍스트를 살펴보면, 인성에 부합하는 예술이라는 기준이 각색자들에게 강박으로 다가와 극중 인물들에게 각기 현대적 가치관에 부합하는 동기 또는 합리성을 부여하고자 하게 만들었다. 마치 이렇게 해야만 오래된 이야기와 현대적 사회 간에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역시나 『조씨고아』를 각색했던 티엔친신(田沁鑫)은 이에 대해 어느 정도 감지했던 것 같다. 그녀는 연출의 말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사람들 사이의 간극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심지어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도 우리는 모두 그에게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닐지 생각한다. 정말 비참한 삶의 모습이다.”

하지만 중국 각색자들의 고민과 달리 한국 국립극단의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은 도덕이 붕괴되는 슬픔을 마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전 서사를 뒤엎는 야심을 드러내지도 않았고, 성실한 태도로 충실하게 원작을 재현한 것처럼 보였다. 익살스러운 연기가 가미된 것을 제외하면, 이번 〈조씨

“이번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을 보니, 이 ‘중화민족의 이야기’는 이미 ‘한국민족화’ 되어 버렸다. 그것도 아주 매끄럽고 완전하게 말이다. 한국은 중국의 전통 원 작극을 가져다가 한국적 특색을 부여하고 현대적 해석을 해냈다.”

— 2016. 11. 2 베이징청년일보_양선(楊申)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고문과 몸부림, 고통, 근심 모두를 이 정도의 극한까지 몰아갈 것이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너무 강렬한 나머지 관객들의 머리와 심장까지 압박해왔다.”

— 2016. 10. 29 젠수(見素) Magazine_왕젠수(汪見殊)

“이 작품 배우들의 연기는 진정성이 있고, 깔끔하며 강한 흡입력을 갖고 있다. 무대표현 형식은 간결하고 직접적이며, 조금도 화려하지 않다. 공연은 원작의 핵심에 충실한 동시에 크게 각색을 하였는데, 현대적 윤리관의 관점으로 현대인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대사로 풀어냈다.”

— 2016. 11. 1 중국국가화극원 기획홍보부

◆ 중국어 서면어(書面語)인 백화(白話)로 쓰인 산문. 「두산백과」.

고아, 복수의 씨앗)은 원래 이야기의 뼈대에 손을 많이 대지 않았다. 심지어 백화중문(白話中文) 식으로 번역한 대다수의 대사는 기군상의 원작에서 그 출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희극의 형식으로 대비극을 풀어낸 것은 모험이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공손저구가 춤을 추며 퇴장하는 장면, 혹은 조씨고아가 우매하게 헛소리를 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이 연극이 골계의 유희 속에 작품의 틀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닐까 걱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다행히 이 연극의 창작자들은 즐거움과 슬픔이라는 양 극단의 정서 사이에서 아주 훌륭한 결합점을 찾아냈다. 그들은 해학적 기법으로 어떻게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지를 알고 있었고, 동시에 신성한 사건 앞에 반드시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함 역시 알고 있었다.

만약 우리가 한국 연극인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아마도 그들이 어째서 중국 예술가들처럼 도덕과 인성의 딜레마에 빠지지 않았는지 또한 알 수 있다. 그 답은 아마도 황당한 익살 속에 숨어있는 것 같다. 서예는 도안고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파견한 자객인데, 우연하게 돌에 부딪혀 죽는다. 한 눈에 봐도 그저 우연하게 죽는 이 작은 광대역할이 오히려 임종이 다가왔을 때 장난스런 말투로 골치 아픈 문제를 스스로에게 반문하는 것이다. 나는 과연 어떤 기억으로 후세에 전해질까?

만약 도덕가가 말한 대로 도덕이라는 것이 스스로에 대한 구속이라면 이것은 아마도 타자의 입장에서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다. 반면에 역사는 우리 모두가 자기 스스로를 비춰보는 거울이다. 한결 이 정영을 풀어주기 전이나 공손저구가 심한 고문을 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망설임 속에서 곤혹스러워 했겠는가. 하지만 그들은 결국 삶을 종결하는 것으로 각자의 선택을 마무리했고, 역사상의 자신을 완수했다. 아마도 이것이야말로 그들 인성의 동기인 것이다.

기군상은 팔백 년 전 “이 꼭두각시의 무대를 향해 북소리 피리소리에 맞추어 놀다 보니 어느새 한바탕의 짧은 꿈 갑자기 고개를 돌려 보니 어느새 늙었고 영웅은 사라졌네.”라고 썼다. 팔백 년 뒤, 한국 연극인들은 현대적 언어로 이 의미를 풀어냈다. “이 세상은 꼭두각시의 무대 북소리 피리소리에 맞추어 놀다 보니 어느새 한바탕의 짧은 꿈 갑자기 고개를 돌려 보면 어느새 늙었네 금방이구나 인생은, 그저 좋게만 사시다 가시기를”이라고 썼다. 물론 강직함은 다소 약화되었지만, 오히려 그 역사적 사유의 의미는 더 부각되었고, 이로부터 셰익스피어가 말한 “이 세상은 무대요, 인간은 연극이라는 인생 속에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배우”에 더 가까워진 것 같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도 된다면 한국 국립극단의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은 오래된 도덕과 현대적 인성 사이에서 어떤 가치 판단에 있어서의 합의점을 모색하고자 노력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합의점은 결코 타협으로 찾아지지 않는다. 도덕과 인성 사이에 조화할 수 없는 갈등이 생겼을 때, 창작자는 단순히 회피하는 방식으로 모호하게 처리하지 않고 분명한 태도로 자신의 답을 내놓았다. 정영의 아내 캐릭터에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목도할 수 있다.

『조씨고아』의 역대 판본에 드러난 정영의 아내 캐릭터의 변천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분명 매우 재미있는 테마가 될 것이다. 이 어머니와 그녀 품 속에 태어난 지 막 한 달이 되었지만 다른 이를 대신해 죽은 아기는 이 복수극에서 가장 무고한 피해자이다. 때문에 복수를 위한 정영의 계획의 정의로움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기군상의 『조씨고아대보구』에서 정영의 아내는 본디 존재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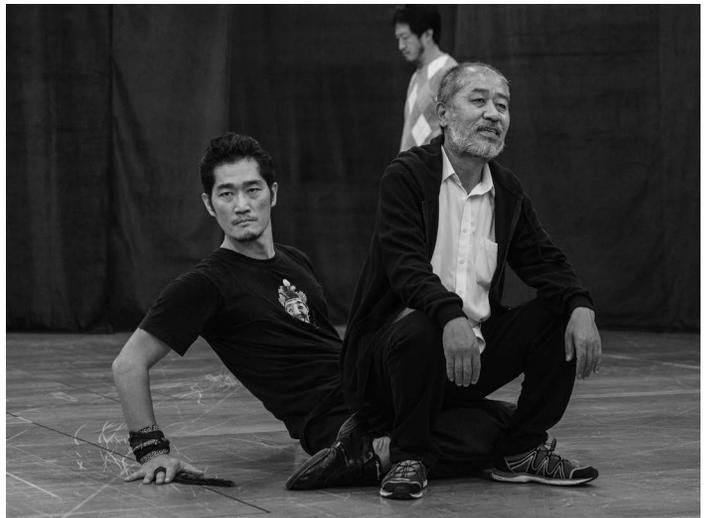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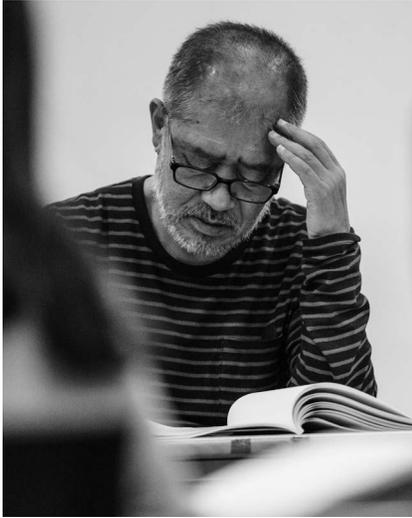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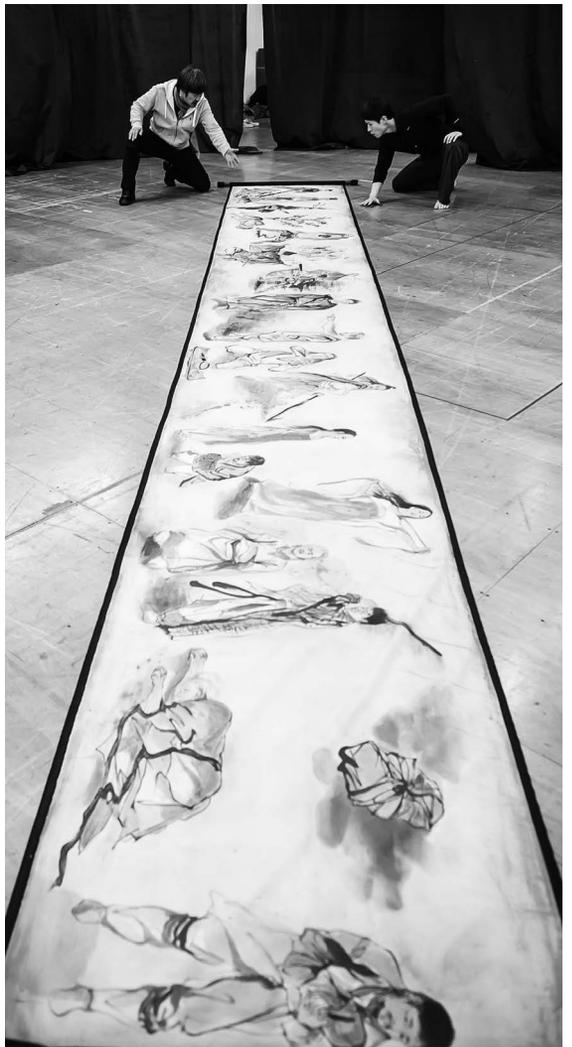
©중국국가화극원

않는 배역이다. 그러다가 민국 시기 『희전戲典』(南腔北調人 편)에 수록된 「수고구고搜孤救孤」에서 정영의 아내는 아예 주동적으로 자신의 아이를 내 놓아 대의를 완수하는 현명한 아내의 모범으로 나온다.

오늘날 창작자들은 당연히 이런 무지막지한 방식으로 한 여성을 그려낼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순박한 여성은 주저하지 않고 큰 소리로 묻는다. 귀족의 자식은 어쩌서 반드시 살아남아야 하고, 평민의 자식은 왜 그를 위해 죽어야 하는가? 그녀는 남편의 도의를 위해 아이를 내어주지 않는다. 물론 정치암투의 희생양이 되도록 아이를 기꺼이 내놓지도 않는다. 그녀가 아이를 강제로 빼앗겼을 때, 그녀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의 죽음으로 가장 격렬한 저항을 하는 것이다.

이런 여성 캐릭터는 정영은 자신의 도의를 다했지만 자신의 죄값은 영원히 치르지 못할 것이란 점을 줄곧 상기시킨다. 그래서 길고 길었던 복수의 맹세가 이행되었을 때, 정영은 이상하게도 조씨 고아처럼 피해 대한 쾌감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챈다. 그는 오히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에 빠진다. 막이 내려오고 죽은 영혼들이 무대에 일렬로 선다. 정영은 그들 사이로 들어가지만 결국 아내에게 용서받지 못한다. 이 인성에 대한 엄한 꾸짖음이 아마도 이 연극의 가장 큰 도덕일 것이다.







임흥식
배우를
기리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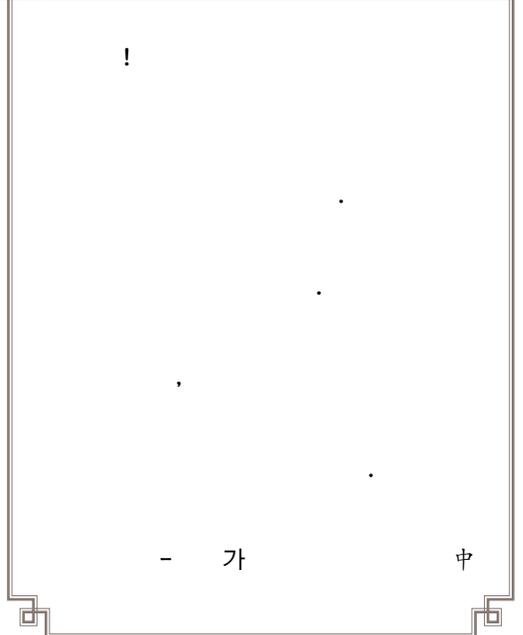
故 임흥식
1953-2015

2015년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초연에 공손저구 역으로 출연한 임흥식 배우가 11월 19일 본인의 역할을 다하신 후 무대 뒤에서 쓰러져 영면하셨습니다.

종연까지 남아있던 3회 공연의 공손저구 역은 조순 역의 유순웅배우가 대신하였습니다.

평생 연극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중견배우를 기리기 위해 2016년부터 '임흥식배우상'이 수여되고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스태프

원작 — **기군상** Ji Junxiang 紀君祥

프로필

번역·드라마트루기 — **오수경** Oh Soo-kyung

한양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저서·공저 「중국문학 어떻게 공부할까」 「BeSeTo10년사」 「세계의 축제와 공연문화」

역서 「삼인삼색-2008한국희극무대현장(중문)」 「한국연극사(중문)」 「중국고대극장의 역사(국문)」 「버스정류장(국문)」 「피안(국문)」

각색·연출 — **고선웅** Koh Sun-woong

프로필_07페이지

무대 — **이태섭** Lee Tae-sup

연극 〈엘렉트라〉 〈실수연발〉 〈갈매기〉 〈혈맥〉 〈하나코〉 〈아버지와 아들〉 〈리어왕〉 〈이영녀〉 〈리처드2세〉 〈아워타운〉 〈궁리〉 〈서안화차〉 〈집〉 〈유리동물원〉 외 다수

창극 〈심청가〉 〈산불〉 〈장화홍련〉 외

오페라 〈맥베드〉 〈천생연분〉 〈가면무도회〉 〈마술피리〉 〈라트라비아타〉 외

무용 〈마담 프리덤〉 〈천년의 기억〉 〈달굿〉 〈분홍신〉 〈화첩〉 외

뮤지컬 〈소서노〉 〈완득이〉 〈청이이야기〉 〈공길전〉 〈락햄릿〉 외

수상 2005 제42회 동아연극상 무대미술상

2005 국제아동청소년연극제 최우수 무대미술상

2000 제6회 한국뮤지컬대상 무대미술의상상

1996 제1회 무용비평가상 특별상

1991 서울연극제 자유참가부문 무대미술상

조명 — **류백희** Ryou Back-hee

연극 〈라바르트랑〉 〈산허구리〉 〈곰의 아내〉 〈한국인의 초상〉 〈로베르토 주코〉 〈선〉 〈관객모독〉 〈별이 쏟아지다〉 〈이자의 세월〉 〈루나자에서 춤을〉 외

무용 〈코볼소〉 〈가을속의 겨울〉 〈되기되기되기〉 〈카드게임〉 〈11분〉 〈기억의 양수〉 외

오페라 〈맥베드〉 〈팔스타프〉 〈라트라비아타〉 외

창극 〈흥보씨〉 〈변강쇠 점찍고 옹녀〉

뮤지컬 〈아리랑〉 〈삼월이 오면〉 〈미스터 조〉 외

의상 — **이윤정** Lee Yun-jung

연극 〈간혹,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 〈옹비어천가〉 〈가지〉 〈로베르토 주코〉 〈혈맥〉 〈시련〉 〈이영녀〉 〈로미오와 줄리엣 발코니 장면을 연습하다〉 〈해경궁 흥씨〉 〈미스 줄리〉 〈꿈〉 외

의상 — **최인숙** Choi In Sook

무용 〈꼬리언어학〉 〈Talk to Igor〉 〈소무〉 〈Fake Diamond〉 〈LOOK LOOK〉 〈달을 기다리는 연인〉 외 다수

창극 〈흥보씨〉

수상 2016 제23회 무용예술상 무대예술상(의상부문)

음악 — **김태규** Kim Tae-kyu

연극 〈곰의 아내〉 〈한국인의 초상〉 〈칼로막베스〉 〈뜨거운 바다〉 〈리어외전〉 〈외톨이들〉 〈흥도〉 외

무용 〈우회공간〉 〈2014 community〉 외

뮤지컬 〈원더풀 라이프〉

분장 — **이동민** Lee Dong-min

노리프로덕션 대표

연극 〈실수연발〉 〈함익〉 〈혈맥〉 〈헨리4세〉 〈맘모스 해동〉 〈아버지와 아들〉 〈먼 데서 오는 여자〉 〈줄리어스 시저〉 〈벚꽃동산〉 〈바나야 저씨〉 〈봄날〉 〈충분히 애도되지 못한 슬픔〉 〈아버지〉 외

수상 2016 Asia 美 Awards Best stage mekeup artist award

소품 — **김혜지** Kim Hye-ji

[무대·소품디자인]

연극 〈후산부 동구씨〉 〈밥〉 〈핑키와 그랑조〉 〈지상 최후의 농담〉 〈잘 자요 엄마〉 〈뽕작〉 외

오페라 〈라보엠〉

뮤지컬 〈균〉 〈커피프린스 1호점〉 〈내 인생의 특종〉 〈힐링 하트〉 외

[소품디자인]

연극 〈실수연발〉 〈로베르토 주코〉 〈잔치〉 〈달빛 안갯길〉 〈아버지와 아들〉 외

뮤지컬 〈헤드윅〉 〈벽을 뚫는 남자〉 〈블러드 브라더스〉 〈설록춤즈〉 외

수상 2015 제52회 동아연극상 시청각디자인상

조연출 — **서정완** Seo Jeong-wan

[연출]

연극 〈모던타임즈〉 〈토끼전〉 〈인간 대표쇼〉 〈젊은 그대〉 〈정의도사〉 〈청춘역습〉

뮤지컬 〈더 하우스〉 〈나의 시간에 머물다〉 외

[조연출]

연극 〈라바르트랑〉 〈탈출 날숨의 시간〉 〈곰의 아내〉 외

뮤지컬 〈잠수괴물〉 〈디스라이프〉

창극 〈흥보씨〉 〈변강쇠 점찍고 옹녀〉 〈경성스케이터〉

마당놀이 〈심청이 온다〉 〈춘향이 온다〉 〈놀보가 온다〉

조연출 — **노현동** Noh Hyeondong

[연출]

연극 〈두아이이야기〉

[조연출]

연극 〈흥도〉 〈강철왕〉 〈칼로 막베스〉

만드는

사람들

출연

하성광 정영
장두이 도안고
정진각 공손저구
이영석 영공
유순웅 조순
조연호 제미명 외

이지현 정영의 아내
성노진 도안고의 부사 외
장재호 서예 외
호산 한결
강득중 영첩
김명기 신오 외

김도완 조삭
전유경 목자
우정원 공주(더블캐스트)
정새별 공주(더블캐스트)
이형훈 조씨고아

스태프

원작 기군상 紀君祥
번역·드라마투르기 오수경
각색·연출 고선웅

무대 이태섭
조명 류백희
의상 이윤정 최인숙
음악 김태규
분장 이동민
소품 김혜지
음향 음창인

조연출 서정완 노현동
무대디자인보 박은혜
조명디자인보 이수연

무대기술 총괄 신용수
기술감독 김무석
무대감독 신승호
무대제작감독 임채호
조명감독 류선영
음향감독·오퍼레이터 음창인
의상감독 박지수
무대진행 나혜민 송찬영 이성진 윤성희
최정환 이미현

조명오퍼레이터 김태진
의상진행 심새늘 한수진
분장팀 이수연 이유미 김다혜

무대제작 쇼앤아트_대표 전계식
조명장비협력 라이팅 캠퍼스_대표 하종기
의상제작 비라이트_대표 이윤정
FERTILE LAND_대표 최인숙
소품제작 연극공방 무(巫)
조명팀 하종기 장재익 윤은재 안지수
이지훈 강병주 이현광 손민영 정호진
이상민 김소진 김진우
음향팀 김학준

영문자막제공 알리샤 김 Alyssa Kim
중문자막제공 중국국가화극원

홍보·마케팅 총괄 정용성
홍보 이정민 오지수
마케팅 이다영 박보영 최윤영 한나래
김태은 소녀진
포스터사진 표기식
그래픽디자인 주식회사 로그_대표 백지은
응용디자인 라프트_대표 임솔 김지하
연습·공연사진 나승열
광고영상 주식회사 제이알미디어_대표 유병우
기록영상 영상작업공간 틀어_대표 황경환

홍보물 인쇄 대신인쇄_대표 이용운
프로그램 디자인 허미경
프로그램 인쇄 삼조인쇄

티켓 이송이 이현아 김보전 김보배 김보연
하우스 매니저 김수현 김나래
안내원 류혜민 백가현 이지예 정해룡
이지은 김민정 김형태 권은서 김소희
김주빈 김혜빈 김민주 임예은 손유희
권령아

기획·제작 총괄 지민주
프로듀서 김영래
제작진행 김현희

제작 (재)국립극단
예술감독 이성열
사무국장 오현실





재단법인 국립극단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재단법인 국립극단은 연극인 및 연극예술 후원자들로 구성된 이사회와 예술감독 시스템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언제나 삶의 진실한 목소리를 담은 연극을 국민에게 보여드리고자 노력합니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하는 연극은 곧 예술의 근원이자 총체이기도 합니다. 국립극단은 시와 음악, 춤, 시간과 공간, 미디어 등 모든 것을 아울렀던 연극 본연의 정신을 이어갈 것이며, 또한 동시대인의 삶과 밀접히 관련된 수준 높은 작품으로 세계와 적극 소통할 것입니다. 그 뜨겁고 열정의 무대가 관객 여러분의 가슴속에서 진한 감동으로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With the board of directors who have been committed in theater or have been patrons for the performing arts,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under the guiding system of the artistic director has always endeavored to stage productions that reverberate with truth and life. We are always reminded of the fact that theater has been the origin of all arts, and it should always reflect thoughtful introspection on humankind and society.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will continue its effort to realize the very spirit of theater which embraces the verse, music, and dance in the newly renovated form of media and understanding of space.

By staging performances that address contemporary problems, we will interact and exchange ideas with the world with our belief that our endeavor will only be completed when our performances touch and move the hearts of our audiences.

(재)국립극단 이사회

김상헌 이사장 네이버(주) 경영고문 | 이성열 이사 (재)국립극단 예술감독 | 김성규 감사 한미회계법인 대표이사 | 고희경 이사 홍익대학교 교수 | 이상우 이사 고려대학교 교수 | 정재승 이사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김성일 이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예술감독

이성열

사무국장

오현실

작품개발실

정명주 실장 | 지영림 작품개발·학술 | 김소연 청년인턴

공연기획팀

지민주 팀장 | 김옥경 김영래 김철순 심소연 박성호 정채영 프로듀서 | 김소현 이아름 청년인턴

홍보마케팅팀

정용성 팀장 | 박보영 최윤영 한나래 김태은 이다영 마케팅 | 오지수 이정민 홍보 | 이현아 김보전 김보배 이송이 김보연 고객지원 | 김나래 김수현 하우스매니저 | 소여진 청년인턴

무대기술팀

신용수 팀장 | 김무석 기술감독 | 김승철 신승호 무대감독 | 최환석 음향인 이병석 음향감독 | 김용주 류선영 임수연 조명감독 | 최슬기 홍영진 무대제작감독 | 임채호 무대기계 | 박지수 무대의상 | 김민주 윤성희 주원국 김태진 김민정 나누리 연수단원

경영관리팀

정광호 팀장 | 신민희 대외·평가·예산 | 현승은 박지민 이민주 예산·회계·세무 | 이민희 복무·복리후생 | 정병욱 시설·안전관리 | 박예원 정보화·교육 | 최태영 경영기획·인사 | 김시내 예술감독 비서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김성제 소장 | 김미선 프로듀서·국제교류 | 손준형 연구원 | 최은정 예술교육 | 안아현 청년인턴 | 권은지 연수단원

2018 시즌단원

이수미 정원조 최지훈 이종무 김 한 주인영 장지아 양 서빈 이원희 김수아 박경주 정새별 홍아론 임준식 이호철 강해진 박가령 조남웅



박경주

<성> <운명> <호신술>



홍아란

<성> <운명>
<오렌지 북극곰>



임준식

<성> <페스트> <오슬로>



정세별

<성>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록앤롤 Rock 'N' Roll>



김수아

<3월의 눈> <페스트>
<오슬로>

2018~19 국립극단 시즌단원들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이종무

<3월의 눈> <운명>
<록앤롤 Rock 'N' Ro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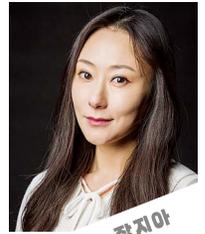
이수미

<3월의 눈> <운명>
<텍사스 고모>



점원조

<사물함> <오슬로>
<록앤롤 Rock 'N' Roll>



장지아

<성> <페스트>
<록앤롤 Rock 'N' Roll>



양서빈

<3월의 눈> <운명>
<록앤롤 Rock 'N' Roll>



최지현

<성> <오슬로>
<록앤롤 Rock 'N' Roll>



주인영

<얼굴도둑> <운명>
<텍사스 고모>



김한

<3월의 눈> <페스트>
<록앤롤 Rock 'N' Roll>



이호철

<3월의 눈> <얼굴도둑>
<오슬로>



강해진

<성> <오슬로>
<록앤롤 Rock 'N' Roll>



박가령

<성> <운명> <호신술>



조남웅

<3월의 눈> <페스트>
<오슬로>

국립극단 작품개발실 OPEN

국립극단은 지난 역사를 정리하고 미래를 기획하기 위하여
2018년 3월 15일 작품개발실을 새로 열었습니다.



작품개발실 주요사업

창단 70주년

2020년 국립극단 창단 70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사업을 준비합니다.

공연
개막식과 폐막식 포함 축제 형식의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
전시
70년 역사를 담은 공연자료 및 영상 아카이브 전시 기획
출판
'국립극단 70년사' 발간
준비위원 김방욱 허순자 김미도 노이정 이진아

70

근현대 희곡의 재발견

1920 ~ 1940년대에 쓰인 한국 우수희곡을
찾아내 무대화 합니다.

2018년 공연 예정작
<운량> 작 윤백남 연출 김낙형
<호신술> 작 송영 연출 윤한솔
자원위원 양승국 이상우 김남석 김명화 김옥란

우리연극 원형의 재발견

가면극, 인형극, 판소리, 대동굿 등
한국 연극의 원형을
동시대적 연극으로 현대화 합니다.

공연 2018. 9.30
장소 국립극단 세계동 미당 외
연화감독 김학수
자원위원 손진책 신선희 이미원 김학수 안대천

희곡 우체통

국립극단에서 공연할 신작 희곡을 찾습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희곡을 투고할 수 있으며
우수한 작품은 수시 희곡상독회에 초대됩니다.

접수처 playpost@ntck.or.kr

우체국장 조만수
운영위원 심재찬 정명주

디지털 아카이브

국립극단의 지난 70년간 400여 작품에 달하는
공연자료를 한데 모아 연구자, 관객 등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합니다.

2018 국내외 사례연구 및 조사
2019 자료 수집 및 구축 작업
2020 4월 OPEN
책임연구원 정주영 연구원 유혜영 리분



하나,
온라인 투고!
playpost@ntck.or.kr

둘,
배우들과 함께 하는
낭독회!

셋,
정식 공연으로 제작!

- 국립극단에서 공연할 창작 희곡을 찾습니다.
- 희곡은 익명으로 온라인 접수 부탁드립니다.
- 낭독회 및 정식 공연은 접수된 작품 중 일부에 한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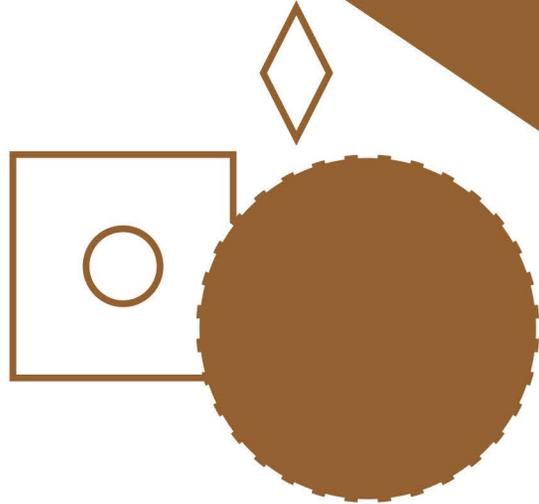
국립극단 02-3279-2259

※ 자세한 내용은 국립극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근원을 찾는 것은 어린 시절을 다시 만나는 작업에서 시작합니다. 그 태생부터 다가가는 어린이청소년극. 예술이 일상으로, 일상이 예술로의 첫 걸음. 즐겁고, 쉽고, 깊게!

그 시작과 인식의 변화를 바로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어린이청소년극을 만듭니다

아시아 최초의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을 꿈꾸다

(재)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는 어린이청소년극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작품 개발을 수행할 국립 연구소로 (재)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 설립을 목표로 2011년 5월 2일에 출범했다.

본 연구소는 우선 청소년 관객층에 대한 연구와 공연제작을 통해 청소년 연극의 새로운 방향성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소년극 작품개발 및 현장 순회공연,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 사례 및 제작과정 연구 책 발간, 국제심포지엄과 이야기판, 교사 세미나, 젊은 작가·연출가·배우 육성을 위한 창작 인큐베이팅 작업으로 <예술가청소년창작벨트>, <작은극장 프로젝트>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예술가탐색전> 등이 있다.

주요 레퍼토리로 2011년 국립극단 첫번째 청소년극 <소년이그랬다>를 시작으로, <레슬링 시즌>, <빨간 버스>, <노란 달 Yellow Moon>, <타조 소년들>, <록산스를 위한 발라드>, <비행소년 KW4839>를 무대에 올렸다.

국립극장 — 국립창극단

차범석 희곡상
뮤지컬 부문 수상
2014

프랑스 파리
테아트르 드 라빌
초청 공연
2016

2018
10.18
|
10.21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목금 8시
토일 3시

R 50,000원
S 35,000원
A 20,000원

만18세 이상 관람가

예매처
국립극장
02-2280-4114
예술의전당
02-580-1300
인터파크
1544-1555

변강쇠
점찍고
창극

오
영
녀
MADAM
ONG



예술적 힘대단, 한국 창극의 새로운 발견

- Emmanuel Demarcy-Mota of Théâtre de la ville de Paris -

운명을 개척하는 적극적인 여성상

- 조선일보 -

예술감독 김성녀
극본·연출 고선웅
작창·작곡 한승석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2018-2019

2018



연속미 판

박해심 9.8 - 10

남인우 9.15 - 17

하수민 10.5 - 7

김지나 10.13 - 15



소극장 판

전석 무료(사전 예약)
국립극단 1644-2003

2018.
9.7-
29

백성희
장민호
극장

연출 김낙형

무대 손호성
조명 주성근
의상 이명아
음악 김동욱
영상 신성환
안무 금배섭
분장 김근영
소품 박현이
음향 유옥선

출연
이수미 이종무
주인영 양서빈
박경주 홍아론
박가령

국립극단
1644-2003

인터파크
1544-1555

SHINSEGAE 프론티어
신원백극단

운명

연백극

근현대희곡의
재발견 9

국립극단 × 제휴처 혜택 안내



국립극단 공연 입장권을 소지하시고 해당 매장을 방문하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제휴처명	내용	연락처
	북카페 전 메뉴 20% 할인 도서 구매 시, 10% 할인 및 아메리카노 1+1 쿠폰 증정 *잡지, 특가도서, 중고도서 제외	02-6004-7391
	샤오롱바오(10개) 제공 *기본메뉴 주문 시 1회 제공, 중복할인 및 포장 불가	02-3789-2778
	전 메뉴 10% 할인 *타 쿠폰 중복 불가, 할인 카드 중복 가능	02-778-6731
	전 메뉴 10% 할인 *타 쿠폰/행사/임직원할인/매니아데이 중복 불가, 성인 2인 이상 시 사용가능	02-779-7871
	런치타임 외 세트메뉴 주문 시, 런치할인 제공 *런치타임 중 런치세트 주문 시, 로스트 커피(S) 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제공	070-7017-6404
	레스토랑 '월향' 20% 할인 룸 예약 시 호텔28 에코백 증정, 당일 객실 가능 시 early check-in, late check-out 무료 제공 *단, 호텔28 홈페이지에서 예약 시 적용	02-774-2828
	매콤순살닭튀김소 제공 *식사메뉴 주문 시 테이블 당 1회 제공, 중복할인 및 포장 불가	02-313-1880

제휴처별 상세정보는 국립극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www.ntck.or.kr | 제휴문의 02-3279-2278

예술新世界

신세계면세점과 국립극단이 청소년과 소외계층을 위한
푸른티켓을 후원합니다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이 세상은 꼭두각시의 무대
북소리 피리소리에 맞추어 놀다 보니
어느새 한바탕의 짧은 꿈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73 국립극단
373 Cheongpa-ro, Yongsan-gu, Seoul, Korea (04302)

서울시 중구 명동길 35 명동예술극장
35 Myeongdong-gil, Jung-gu, Seoul, Korea (04534)

